

부문별 주요 기사

10월 1일~10월 31일

대내경제
대외경제

부문별 주요 기사

10월 1일~10월 31일

대내경제 76

<인민생활>

경공업 부문에서의 생산강조
대북제재 속 산업전시회 열풍
노동당 창건 72주년

<농업 및 식량>

작황 부진과 국제제재로 올해 식량 상황 악화
인구대비 영양부족과 도시·농촌 영양격차 세계최악

<에너지>

대북제재로 기름값 상승

대외경제 78

<대북제재>

국제사회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나서
북한, 외화벌이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 중

<대외무역 및 교류>

북한-러시아 경제 활성화
중국, 9월 북한산 석탄 50만t수입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대내경제

<인민생활>

News1(10.10), 뉴시스(10.11), 한국일보(10.29), 연합뉴스(10.20, 10.31), 중앙일보(10.2, 10.31)

경공업 부문에서의 생산 강조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김정은 위원장은 연일 화장품과 같은 소비제품 공장을 시찰하여 인민경제의 향상을 위해 경공업 부문의 생산을 강조했다라는 보도임. 이는 지난 10월 7일 진행된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대응방향인 것으로 알려짐. 회의 이후 김정은은 류윈신발공장과 평양화장품 공장을 방문했음. 류윈신발공장을 방문했을 때 공개한 사진 속 신발 진열대에는 세계 유명 신발브랜드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이 전시되어 있었음. 김 위원장은 신발생산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신발들과 당당히 견줄 수 있다고 만족을 표시했다는 보도임. 29일에는 부인 리설주와 함께 새로 개건된 평양화장품 공장을 방문했음. 경제시찰에 집중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이후 꾸준히 강조되고 있는 자강력제일주의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국산화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임. 김정은은 화장품 공장 시찰 중에 세계 유명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것을 주문함. 신발·화장품 공장설비의 87%, 84%가 자체제작되었음을 강조하며, 생필품의 국내생산 비중을 키우라고 요구함.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나선 민생행보는 대북제재에 따른 해외 의존력을 낮추고, 내부 결속력을 다져 주민들의 불안을 낮추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임.

대북제재 속 산업전시회 열풍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 각종 산업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올해 북한에서 개최된 산업전시회는 약 30회이며, 지난 8월부터 증가 추세에 있음. 전시회는 요리부터 산업, 미술분야까지 다양한 범위 내에서 개최되고있으며, 전시회에서는 북한의 국산품을 전시하여 인민소비품의 홍보도 겸하고 있다는 보도임. 북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시회를 활용하고 있다는 보도임.

노동당 창건 72주년

김일성·김정일의 생일과 정권수립일과 함께 북한 4대명절에 해당되는 조선노동당

창건일에 국제사회의 우려와는 달리 특이 동향 없이 북한 내의 여러 행사를 통해 차분히 진행되었다는 보도임. 올해 당 창건 72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자위적 국방력과 병진노선을 노동신문과 같은 매체를 통해 강조했으며, 청년들을 위한 학생 무도회가 각지에서 열렸음.

〈농업 및 식량〉

RFA(10.12, 10.16, 10.31), VOA(10.11, 10.19)

작황 부진과 국제제재로 올해 식량 상황 악화

식량농업기구(FAO)를 비롯한 식량문제 전문 단체들은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지난해 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FAO는 ‘식량안보·농업 부문 세계조기 경보-조기 대응 보고서’에서 4~6월 사이 가뭄으로 인해 이모작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데 이어 가을 작황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봄. 미 농무부 역시 봄 날씨가 매우 건조했던 탓에 올해 쌀 수확량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한 155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함. FAO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로 북한의 구매력과 곡물 비축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점도 식량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함.

북한 내부에서는 지역에 따라 농사 작황 편차가 크게 나타나 내년도 식량사정과 향후 식량 가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소식을 전함.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은 수확량 뿐 아니라 식량보관과 관리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이 보장된다면 작황이 나뻐어도 식량난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인구대비 영양부족과 도시·농촌 영양격차 세계최악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와 도농 영양 격차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세계식량정책연구소는 ‘2017 세계굶주림지수’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열 명 중 4명이 영양부족 상태로 열 명 중 2~3명이었던 90년대보다 영양 상태가 더욱 나빠졌다고 밝힘. 이는 전체 119개 대상국 중 27번째로 심각한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난의 행군 시절 유년기를 보낸 북한 주민의 상당수가 만성적인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FAO는 2017년 세계식량농업백서에서 북한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농간 빈곤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함. 도시 거주 어린이의 저체중 비율은 13%인 반면, 농촌

거주 어린이의 저체중 비율은 27%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 세계 식량문제 전문가 120여명이 참여한 ‘시골지역 굶주림 해소’ 사업에서도 북한의 도시 주민과 시골 주민의 영양(칼로리) 격차가 조사 대상 139개국 중 가장 나쁜 것으로 확인됨.

<에너지>

RFA(10.10, 10.17)

대북 제재로 기름값 상승

대북 경제제재가 전방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물가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연료값이 오름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애용하는 삼륜 오토바이와 써비차의 운임이 2배 이상 상승하고, 운행이 제한되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음. 겨울철 휘발유나 디젤유 발전기를 사용해왔던 야간상업시설들도 기름 값이 오르면서 자체 전력 마련을 위해 중국산 태양광 전지판과 배터리를 앞다투어 구입하고 있다고 전해짐.

대외경제

<대북제재>

RFA(10.10, 10.12, 10.13, 10.16, 10.21, 10.23), 연합뉴스(10.13, 10.20, 10.24), 중앙일보(10.17)

국제사회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나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채택된 이후 여러 국가에서 양자제재를 추진하거나 대북제재 결의 이행으로 인해 북한과의 무역 및 교류 양상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관찰됨. 유럽연합(EU)은 유엔 제재보다 더 강력한 유럽연합 차원의 독자제재를 발표했으며(시행규칙 1859호) 북한에 대한 모든 산업 분야 투자 금지, 정제된 석유 제품과 원유 수출 금지, 개인 송금 한도를 기존 1만 5,000유로에서 5,000유로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또한 유럽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 허가 갱신을 중단하기로 발표함. 영국 정부도 북한인 104명, 북한 기관 67곳으로 대북 제재명단을 수정하였으며 제재 대상자와 기관은 영국 내 자산이 즉시 동결되고 영국 기업, 개인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 됨.

인도는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북한과 무역량이 세 번째로 많은 국가로 유엔 대북제재 이후 2017년 10월 현재 양국간 무역량이 전년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특히 인도의 대북 주요 수출 품목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천연가스 부산물인 콘덴세이트, 경질 휘발성 액체탄화수소이며 수입 품목은 수산물, 납광석, 옷감으로 향후 유엔대북제재로 인한 무역규모 감소는 불가피해 보임. 동남아시아 미얀마와 베트남에서도 대북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무역회사 대표들을 추방하였고 특히 베트남 정부는 사이버 테러 의혹을 이유로 북한의 정보기술 인력 21명의 비자 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짐.

아프리카 국가 우간다는 2015년 한국 정보당국이 지정한 5대 친북국가로 대표적인 친북국가 중 하나임.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제재 추진 이후 우간다 정부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자국에서 퇴출하고, 우간다 군(UPDF)과 군사 교류 중인 북한 군사교관단과의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 하는 등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

북한, 외화벌이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 중

국제사회의 초강경 대북제재로 인해 금융, 무역, 해외노동자 파견 등 대부분의 외화수입원에 타격을 받게 되자 북한은 새로운 외화벌이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임. 특히 북한은 올해 처음으로 평양 마라톤을 연 2회 개최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낚시, 자전거투어, 스쿠버, 스포츠 활동 여행상품을 만들어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음. 최근에는 중국에 연고가 있는 북한 주민에게 무더기로 여행증을 발급하여 가족이나 친척 방문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짐. 여행상품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북한 예술작품에 대한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 주요 도시에서 수차례의 북한 예술전을 개최하고 북한 예술품 경매를 통해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중국당국의 북한 기업의 합작금지 조치로 연말까지 철수를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내 북한 식당들 중 몇 곳은 이미 영업을 중단했으며 그 동안 거둬들인 대북제재에도 호황을 누렸던 대규모 식당들도 손님이 없어 침울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짐. 또한 라오닝성 단둥시에서는 북한 노동자 귀국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임. 대북제재로 인해 중국 세관에서 입가공품 반입 불허 등 정상적인 북중간 무역거래가 어려워지자 북한 국가 무역기관들조차도 선박을 이용한 밀수를 자행하고 있으며 그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도됨.

〈대외무역 및 교류〉

RFA(10.18), VOA(10.31), 매일경제(10.18), 문화일보(10.18)

북한-러시아 경제 활성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오히려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시베리아산 석탄을 나진-하산 철도를 이용해 나진항으로 운송한 뒤 중국으로 반출해오는 사업으로, 국경철도를 이용한 러시아산 석탄 반출량이 처음으로 200만톤을 넘었음. 러시아는 올 연말까지 40만t 정도를 더 실어 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또한 러시아 극동개발부 고위인사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이외에도 양국을 잇는 해상 화물·여객선(만경봉호)도 운항을 시작했다고 설명함. 만경봉호 운항 자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만경봉호가 금수 물자를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 정기항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빠져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실제로 만경봉호가 북한과 중국의 무역 중계에 관여하고 있다는 교도통신의 보도임.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북한 선박 입항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북한이 러시아에서 다른 나라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실어 중국으로 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함. 통신이 입수한 지난달 14일과 29일 선박의 운송화물 내역이 담긴 선하증권(B/L)에 따르면 만경봉호는 북한 라선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약 16톤의 알루미늄을 수송하였고 최종 목적지는 중국 광둥성 포산으로 북한 선적 이외의 선박으로 옮겨 실어 운송할 계획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북러 교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대북 결의를 준수하고 있으며 안보리 결의 틀 내에서 허용되는 경제, 인적교류 협력가능성을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중국, 9월 북한산 석탄 50만수입

중국이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8~9월에 북한에서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무역협회가 공개한 중국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에서 미화 4,400만달러에 달하는 50만9천의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 거래는 중국이 지난 8월 14일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의 수입 금지를 발표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 중국 정부(상무부와 해관총서)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고)의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지적이 나옴. 이에 대해

중국은 공고 발표 이전에 중국 항구에 운송된 물품은 반입을 허용키로 하며 9월 5일부터는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이 전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음. 즉 결의안 채택 이전에 체결된 서면계약에 대해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반적인 접근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아시아경제(10.10), 중앙일보(10.10), 매일경제(10.12), RFA(10.12)

아래 표는 10월 한 달 간 국내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국가명 (단체)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미국 (겨레사랑)	확인 불가	지원품	2000만 달러 규모 의약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단체는 북한에 진료소 설립 및 의약품 공급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음. · 어린이 학생제를 비롯한 의약품 지원.
유엔 (6개 유엔 기구)	2017년 1~9월	지원금 및 지원품	3,280만달러 규모 (한국정부의 800만달러 지원금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식량계획(WFP): 2,300만달러 · 유니세프: 670만달러 · 세계보건기구(WHO): 130만달러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80만달러 · 유엔인구기금(UNFPA): 80만달러 · 유엔인도주요사무조정국(OCHA): 20만달러
미국 (조선의 고아수도인 베타들)	2017년 10월 17일 ~11월 4일	기술지원	확인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 및 간염 병원 25~30곳을 방문해 지원물자가 제대로 분배됐는지 확인하고 병원들에 추가 수도시설을 설치할 계획.

기사 원문 리스트

- [2017.10.10] EU, '노동자 신규 고용 금지' 등 대북 제재 강화 (RFA)
- [2017.10.10] 北, 당 창건일 차분한 분위기... "반미 최후승리 앞당겨야" (News1)
- [2017.10.10] 대북제재로 연료값 올라 삼륜 오토바이 운임 2배로 (RFA)
- [2017.10.10] 美 대북지원단체, 北에 2000만 달러 규모 의약품 지원 (아시아경제)
- [2017.10.10] 美 대북지원단체, 북한에 의약품 227억원어치 지원 (중앙일보)
- [2017.10.11] FAO "북한, 올해 작황 부진·제재로 식량 상황 더 악화 할 것" (VOA)
- [2017.10.11]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 청년무도회 (뉴시스)
- [2017.10.12] 미 국무부, 미 NGO '인도지원' 방북 허가 (RFA)
- [2017.10.12] 북 식량사정 현재는 안정세, 전망은 불투명 (RFA)
- [2017.10.12] 올해 3분기까지 유엔 대북인도지원, 작년 총규모 상회 (매일경제)
- [2017.10.12] 중국내 북한식당 제재로 버티기 어려워 (RFA)
- [2017.10.13] 北, 제재 속 외화획득 골몰...새 마라톤 개최·호텔투자 유치 (연합뉴스)
- [2017.10.13] "중 단통세관, 불법행위 북 트럭 운전사에 입국 금지" (RFA)
- [2017.10.16] EU, 대북 투자·원유 수출 전면 금지... 유엔 제재보다 더 강력 (RFA)
- [2017.10.16] "북, 아시아서 인구대비 영양부족 최악" (RFA)
- [2017.10.16] 북 외화벌이 이번엔 예술품으로 (RFA)
- [2017.10.17] "단통서 北 노동자 출출이 평양행 열차 올라...북한식당선 현금만 취급"
(중앙일보)
- [2017.10.17] 북, 기름값 오르자 태양광 발전기 인기 (RFA)
- [2017.10.18] "러시아, 나진-하산 프로젝트 계속 추진" (RFA)
- [2017.10.18] '밀착' 北·러, 나진-하산 經協 계속 추진 (문화일보)
- [2017.10.18] 주북 러시아 대사 "러, 나진-하산 프로젝트 계속 추진할 것" (매일경제)
- [2017.10.19] 미 농무부 "북한 올해 쌀 155만t 수확할 것"...내년 8만t 수입 전망 (VOA)
- [2017.10.20] 김정은 시찰 신발공장 사진보니...유명브랜드 '유샤신발' 포착 (연합뉴스)
- [2017.10.20] 미안마, 안보리 제재이행보고서에 '北외교관 추방' 공개 (연합뉴스)
- [2017.10.20] 베트남, 北원양해운 대표도 추방...北 IT인력 21명 비자연장 거부 (연합뉴스)
- [2017.10.20] 우간다 등 친북국가들도 유엔 대북제재 적극 이행 (RFA)
- [2017.10.21] 북, 외화벌이 위해 "관광 사업 도와달라" 당부 (RFA)
- [2017.10.23] 인도, 유엔 대북제재로 무역 길 막혀 (RFA)
- [2017.10.24] 영국, '북한인 3명·北기관 6곳' 제재대상 추가 (연합뉴스)

- [2017.10.29] 신발 이어 화장품 공장...북한 김정은 잇단 '경제 시찰' 왜 **(한국일보)**
- [2017.10.31] FAO “북 주민 10명 중 6명 도심 거주” **(RFA)**
- [2017.10.31] 北신문 “인민생활 질적 비약 위해 경공업 증산·혁신해야” **(연합뉴스)**
- [2017.10.31] 북한에 부는 산업전시회 열풍 그 이유는? **(중앙일보)**
- [2017.10.31] 중국, 9월에도 북한산 석탄 50만t 수입... “제재 이행 여부 의문” **(VOA)**